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5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목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244번(성모의 성월)
2. 목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가 1,46~55**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성모의 밤' (5월 7일)과 '본당의 날' (5월 15일)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2005년 5월 북미주 사제 총회 및 피정이 San Francisco에서 열림.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45번(맑은 하늘 오월은)

## MEMO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ECCLESIA DE EUCHARISTIA>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헌칙

제6장 ‘성찬의 여인’ 이신 성모님의 학교에서

53. 우리가 교회와 성체성사의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재발견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모범이신 성모님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신비에 성체성사의 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성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거룩한 성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복음서에는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목요일 밤의 성체성사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성모님께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첫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사도 1,14) 기도하던 사도들 가운데 성모님께서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빵을 나누어 먹는 일에 전념한”(사도 2,42)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찬례 거행에 분명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성찬의 잔치에 참석하신 일 외에도, 우리는 성모님의 내적 자세에서 성모님과 성체성사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하여 ‘성체성사의 여인’이십니다.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의지하는 교회는 성모님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와 맺고 계시는 관계에서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54. 신앙의 신비여! 성체성사가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라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모님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것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고 하시며 그분께 순명하라는 성모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여 주신 어머니다운 관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그가 물을 술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빵과 포도주도 그의 몸과 피가 되게 하고, 이 신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부활의 생생한 기억을 전해 줌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5.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는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바치심으로써 성체성사 제정 이전에 이미 성체성사의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강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성모님께서는 몸과 피라는 육체적 실재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모든 신자 안에 성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 안에서 선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천사에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fiat)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든 신자가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실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요청받으셨습니다(루가 1,30-35 참조). 동정 성모님의 신앙과 일치하여, 우리도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성모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현존하심을 믿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 1,45). 성모님께서는 또한 강생의 신비로써 교회의 성체성사 신앙을 선취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잉태하고 계셨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나, 말하자면 성모님의 눈과 목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엘리사벳의 흡수를 받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를 품안에 안고 들여다보시는 성모님의 기쁨에 넘치는 그 눈길이야말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비할 데 없는 사랑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

- 루가 1,46~55 -

마리아의 노래로 불리우는 이 기도문은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하느님의 업적과 인류구원 역사에 감사드리며 부른 찬미가이다. 또한 이 노래는 구세주 예수를 낳으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몸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축복의 말에 응답하면서 부른 마리아의 찬미기도이다.

이 노래는 구조와 내용 표현에 이르기까지 1 사무, 2장 1-10절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시편을 비롯하여 수많은 구약성서 구절들을 이끌어 들이고 있다. 마리아의 노래는 그 옛날 이스라엘 안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위업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증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말론적 찬가’라 할 수 있는 이 노래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루가의 특수사료에 속하는 이 노래는 6장 20-26절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하느님 백성이 이제 막 체험하게 된 종말론적 사건의 해설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 홀로 감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구약의 하느님 백성의 모든 찬가가 그 절정에 이르며 동시에 그 한계선을 뛰어넘게 된다. 이 감사의 찬가를 읽는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나 마리아와 더불어 기뻐 용락하도록 초대받게 된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누구나 하느님의 위업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마리아가 불렀던 마니피캇을 언제나든 힘차게 노래할 수 있다. ‘주님, 나의 구원자, 권능을 떨치는 분, 거룩한 이름을 지니신 분’이란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종합되고 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느님은 한마디로 ‘구원의 하느님’이다. 그분은 결코 **저 멀리 떨어져 사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향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아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 또한 그분은 수많은 이들을 집단적으로 대충 바라보는 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느님 ‘나의 구원자’**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무엇이든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몸소 이루신 업적들 한가운데 충실히 머물면서 언제나 필요한 힘을 불어 넣어주는 ‘지속적 창조주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들어 올리고 풍요롭게 해 주듯이’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들은 여지없이 ‘홀어 버리고 내치시는 주님’이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비천한 존재요 종이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며 굶주리는 이들이다. 하느님의 위업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간은 늘 자신의 존재의미를 깨달아 그분께로 돌아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주님이 아니라 ‘종’이며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자각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궁핍한 처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된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입장을, 한없이 낮고 작은 모습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다. **겸손은 가장 소중한 덕이며,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들어 올리신다.**

- ※ **나눔:**
1. 하느님을 ‘나의 구원자’ 라고 믿습니까?
  2. 내가 만난 비천한 사람은? (자신, 가족, 이웃...)
  3. 성모님을 본받고 싶은 덕, 나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덕은 무엇입니까?



##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다 ”

뉴욕 대교구의 한 사제가 로마의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한 거지를 만났다. 그를 얼핏 바라보던 그 사제는,  
그가 자신과 같은 날 사제가 된 신학교 동료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에 놀라며  
그는 거지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서 그가 믿음과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제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 사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개인 미사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미사 말미에 언제나처럼 교황에게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자기 차례가 되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자신의  
옛 신학교 동료를 위해 기도를 청하고 싶은 내심의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교황에게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루가 지나 그가 바티칸으로부터 교황과의 저녁식사에  
그 거지를 데리고 참석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사제는 그 교구로 돌아가 옛 친구에게 교황의 초대를 전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혀 교황 앞에 데려갔다.

저녁 식사 후에

교황은 거지와 돌만 있게 해 달라고 사제에게 부탁했다.  
교황은 그 거지에게 자신의 고해성사를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놀라며 자신은 지금 사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교황의 대답은 이러했다. "한 번 사제이면 영원한 사제입니다."  
"나는 이제 사제의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집했으나  
"나는 로마의 주교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사제의 권한을 수여합니다."고 교황은 말했다.  
그는 교황의 고백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고백을 들어달라고 교황께 청했다.  
그는 몹시 흐느껴 울었다.  
마지막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에게 어떤 교구에서 구걸을 하는지 묻고는  
그를 그 교구의 보좌신부로 임명하고 거지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

「아우스 크루키 호이테」誌, 2001년 10월호에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이 기사는 사제직을 떠났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 회심하게 된 어느 한 사제의 이야기로서 미국  
의 `마더 안젤리카` 수녀의 TV 프로에도 소개 되었었다. - 마리아 2002년 5~6월 113호 중에서 -